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崔世昊
印刷人 方又三
主幹 洪起善
編輯局長 洪申洙
編輯部長 韓鳳洙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首

垢中之垢,
莫甚於痴。
學當斯惡,
比丘無垢。

이 세상의 많은 때 가운데 어리석음보다 심한 때는 없나니, 「비구」들이여, 공부하는 이들이여, 악을 떠나서 이 때를 없애라.

<法句經>

實驗大學制 80학년부터 實施

法政大·經商大에 우선 적용

○…本校는 지난 13일 文敎部로부터 實驗大學制度를 승인받아 오는80학년도부터 적용, 실시케 되었다。 문교부 승인사항을 보면 ①졸업학점 인하조정 ②부전공제 실시 ③계열별 학생모집 ○…정원 3개 항목으로 法政大學과 經商大學 신입생부터 실시하게 되며 차차 타 ○…대학으로 넓혀가게된다。 졸업학점은 이전의 1백60학점에서 1백40학점으로 감축 조정되었 ○…고 부전공학점은 21학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적용대상 대학중에 2부대학과 전자계산학 ○…과는 제외되었다。

이번에 本校가 실시하게 될 실험대학제도는 사회급변과 그에 요청되는 인력수급에따른 大學敎育의 理念, 機能변화와 學術情報의 폭증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개혁으로서 취해진것인데 본교는 지난6월부터 실험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문교부에 인가신청을 해놓았다。

이번에 승인된 요목은 실험대학제도 6가지중 기본적인 3개항목으로 ①졸업학점 인하조정은 교육내용의 축소를 줄이게 된 것이다。 ②부전공제 실시는 1백40학점 범위내에서 21학점을 원칙에 맡겨졌으며 전자계산학과는 졸업대에 포함되나 동일계열이 아니므로 제외된 것이다。

본교에서는 이번에 실험과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교과과정개편, 신입생선발방법, 복학및 편입생등의 처리, 과제도서실 설치, 학습조교개선방안, 수강정정방법, 학점등 관련 제부사항에 대해 현재 연구중인 것이므로 알려졌다。

이번 실험대학제도의 요지는 ①졸업학점 인하조정 ②부전공제 실시 ③계열별 학생모집 ④학점 재편성을 위하여 학생의 대학과 전공결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법정대학과 경상대에만 실시하는 것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실험대학실시가 원만하고 전자계산학과는 졸업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외된 것이다。

이수함으로써 他敎育분야도 전공할수 있게 되었다。 ③계열별모집은 각과 전공결정의 기회를 넓힘 것이다。

고은 각과 학생의 적성과 학생의 대학과 전공결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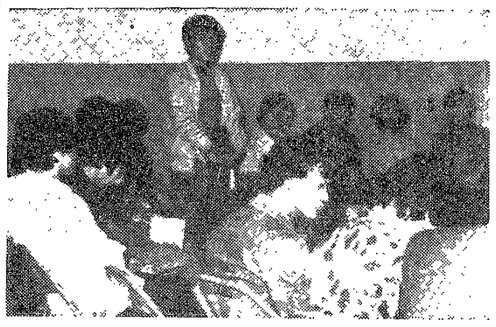
한편 이번에 법정대학과 경상대에만 실시하는 것은 교육내용 조정과 교육방안, 수강정정방법, 학점등 관련 제부사항에 대해 현재 연구중인 것이므로 알려졌다。

이번에 승인된 요목은 실험대학제도 6가지중 기본적인 3개항목으로 ①졸업학점 인하조정은 교육내용의 축소를 줄이게 된 것이다。 ②부전공제 실시는 1백40학점 범위내에서 21학점을 원칙에 맡겨졌으며 전자계산학과는 졸업대에 포함되나 동일계열이 아니므로 제외된 것이다。

본교에서는 이번에 실험과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교과과정개편, 신입생선발방법, 복학및 편입생등의 처리, 과제도서실 설치, 학습조교개선방안, 수강정정방법, 학점등 관련 제부사항에 대해 현재 연구중인 것이므로 알려졌다。

活性化 自律에 한 對話전개

호국단과 써어클 실무자 회의



◇지난 13일 열린 호국단—써어클실무자회의 광경.

환경정화사업

피나 환경정화사업은 당면한 문제 및 각종 活動의 能率化·活性化問題 호국단 예산집행 문제 등 학교당국에 대한 건의와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학생회관 제1회의실에서 호국단 간부와 써클 실무자들로 구성된 환경정화 실무자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는 교내 41개 써클장들과 호국단 간부등 학생들만의 자율적인 진행이었다는 점과 대화의 장으로서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 시간에 결책할만한 건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校內써클의 당면과제및 각종 活動의 能率化·活性化問題 호국단 예산집행 문제 등 학교당국에 대한 건의와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학생회관 제1회의실에서 호국단 간부와 써클 실무자들로 구성된 환경정화 실무자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는 교내 41개 써클장들과 호국단 간부등 학생들만의 자율적인 진행이었다는 점과 대화의 장으로서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 시간에 결책할만한 건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학생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활동, 학생과의 대화, 학생과의 격려가 지속되는 진지한 토론과 견교환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의의는 써클활동의 주어질 것이다。 "기성무자회의의 네용을 본사 정리한 것이다。"

써클행정문제

둘째, 공고판의 무원칙한 활용및 비실용적인 利用문제에 관해 각 대학별, 써클별, 행정기관별로 적용방법등을 구체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각 써클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각 대학별, 써클별 수급에 따른 인력 요청되는 사회급변과 그에 요청되는 인력 수급에따른 大學敎育의 理念, 機能변화와 學術情報의 폭증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개혁으로서 취해진것인데 본교는 지난6월부터 실험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문교부에 인가신청을 해놓았다。

이번에 승인된 요목은 실험대학제도 6가지중 기본적인 3개항목으로 ①졸업학점 인하조정은 교육내용의 축소를 줄이게 된 것이다。 ②부전공제 실시는 1백40학점 범위내에서 21학점을 원칙에 맡겨졌으며 전자계산학과는 졸업대에 포함되나 동일계열이 아니므로 제외된 것이다。

본교에서는 이번에 실험과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교과과정개편, 신입생선발방법, 복학및 편입생등의 처리, 과제도서실 설치, 학습조교개선방안, 수강정정방법, 학점등 관련 제부사항에 대해 현재 연구중인 것이므로 알려졌다。

環境정화사업등 우수

東國文學 중흥의 門열어

한국文學硏, 위원및 사업 확정

◇金長好교수

둑국문학의 활성화 작업을 위해 설립된 한국문학연구소의 제1차 운영 및 연구위원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5시, 대학본관 소회의실에서 鄭在覺총장을 비롯 관계교수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구소 소장으로 金長好(사대·국교과) 교수가 일명되었으며 이날 鄭총장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급팽창이 불과 근간을 불교문화의 동국 전통의 근원이다。 이제 동국문학 전승을 위해 한국문학연구소의 문을 열게되어 기쁘다。 활발한 연구·사업을 위해 관계 교수나 교외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한편 회의사항으로 연구소 규정과 사업계획이 통과되었는데 구체적인 연구소 사업내용은 ①기초사업=「한국문학연구」誌 발간, 연례심포지움 개최 자료전시회, 해외연구원교류 ②한국문학 자료수집, 박물관 분류정리·보관, 필사본문헌 초청강연 녹음·녹화, 박물관 진흥사업=문예 창작교실운영, 동국시집 간행 등이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 (문교처인교수 6명)

▲李東林(국문과)▲金起東(국문과)▲宋在甲(경수대 국문과)▲洪起三(국문과)

◇연구위원 (동문문학자 6명)

①현대문학분과=▲趙演鉉(한양대교수) ②고전문학분과=▲李元燮(서인)▲李相寶(명지대교수) ③비교문학분과=▲李根三(서강대교수) ④창작문학분과=▲李範宣(외대교수)

◇소장=金長好(국교과교수)

◇간사=金昌起(문문)

사찰 조경연구소 소장

徐源祐교수 새로 임명

국보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同연구소에서는 한국문화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의 기본원형을 찾아 이를 복구 정립할 예정이다。

安保硏, 學術토론회

「80년대 한반도평화의 과제」

「80년대 한반도 평화의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가 안보연구소(소장=閔丙天) 주최 학도호국단 법정대학 주관으로 9월26일 (水) 오후2시에서 5시까지 중앙대(행정·3) 문동 3명 정도。

대학생의 국가안보및 민족생존에 대한 관심제고및 충효안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토론회는 법정대학 재학생인 정현(행정·3) 교수 ◇간사=金昌起(문문)

이 발표자로 나서서 각주제별로 발표하고 본교 전 학생이 토론 및 질의자로 참가할 수 있는데 주제별 발표및 찬·반 토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도교수로는 朴昌瀅(행정과) 金光鎭(정외과) 鄭用吉(도행과) 교수등 3명의 교수이며 토론회가 끝나면 韓相範(법정대학장) 교수, 申基珍(정외과) 교수, 朴蕪浩(행정과) 교수, 李璜雨(경행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발표상, 토론상, 질의상, 장려상을 선정해드로 수상, 장려상을 선정해드로 어진다。

화학과, 장학금지급

화학과동창회서

화학과동창회 (회장=김대현·화학과 3회졸) 에서는동창회및 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업우수학생에게 9월18일 (火) 문리대학장실에서 화학과 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을 전달했다。

2·3·4학년에게만해당되는 이장학금은 매년, 매학기마다 지급되는데 지난72년에 처음 지급된 이래금년까지 8명째인 꾸준히지급된 바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2학년=한연수, 3학년=백성현, 4학년=김호배

明進館窓戶공사

스틸샷슈로교체

종무처 (처장=金翰周 박사) 에서는 明進館(구석조관) 외부 窓戶교체 공사를 하고있다。 鄭周永 (자유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씨의기증으로 본교 교체 공사를 9월15일부터 이달말 까지 완고있다。 鄭周永 (자유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씨의기증으로 하게된 이번 공사는 창문틀을 스틸샷시로 교체하고 지붕, 천바람의 유입등으로 추위에 고통받던 불편을 제거, 수업분위기에만 전념하게 된다。

본공사는 수업이없는 일요일을 이용, 시공할 예정이다。

한편 안일동 기숙사에 쓰레기장 설치및 수공사도 있었다。

安保硏, 學術토론회

불교합창단 공연

강연회도 중강당서

百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교합창단 (회장=이용돈·전자2) 에서는 강연회 및 불교합창단 가을공연을 9월28일 (金)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에 걸쳐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동국대정전의 정동성 합창단 지도교수의 재인식및 동국발전 대열에의 참여유발위한 행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

레슬링3위-배기열등우승

金暎熙 노르웨이 전지훈련

지난 8, 9양일간 본교에서 열렸던 제3회 「캠퍼먹학 아마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그레코로망형에출전한 배기열 (체교4·라이트급) 정영희 (체육1·미들급) 선수, 자유형에 출전한 이의용 (공경2·밴텀급) 선수가 각기 우승했다。

6개체급에 걸쳐 모두 11명이 출전한 본교와 달리 이번대회는 총 7개팀이 참가했는데 본교는 일본과의 레슬링교환경기 등 앞으로 피로로 종합성적 3위의 예년에비해 저조한 성적을거두었다。

한편 빙상부의 金暎熙(가교·4) 선수가 80년도 미국 레이크 플레시어 대회」에 대비, 지난 1일 노르웨이로 전지훈련을떠났다。

한국기록보유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인 金선수는 3천미터, 1천5백미터등장거리 가주종목인데 앞으로 3개월간 현지훈련을 갖게된다。

호국단의 자세

한편 호국단이 학생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 의물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 의물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 의물을 제시

學術活動과 학생의 참여

사설

가을 학기중에 9月과 10月은 학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이번 9~10月만해도 이미 9月1日에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全國 佛敎學術 發表大會를 개최하였고, 오는 10월 25~26 양일에는 본교 주최로 全國 大學生 社會科學 學術硏究發表大會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未堂 徐廷柱교수의 회갑기념 특별강연회가 열린다.

특히 10월에는 크고 작은 각종 학술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있어서 학술세미나나 학술강연회가 정규수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거니와, 대학에서의 모든 행사는 사실상 수업의 연장으로서 때로는 수업이상의 학문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물론 대학생 중심의 학술행사와 교수중심의 학술행사와의 학력 수준의 차이때문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전공과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학술행사라면 10月은 학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이번 9~10月만해도 이미 9月1日에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全國 佛敎學術 發表大會를 개최하였고, 오는 10월 25~26 양일에는 본교 주최로 全國 大學生 社會科學 學術硏究發表大會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未堂 徐廷柱교수의 회갑기념 특별강연회가 열린다.

특히 10월에는 크고 작은 각종 학술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경우 교수들의 권유가 있었거나, 대학에서의 모든 학술행사는 사실상 수업의 연장으로서 때로는 수업이상의 학문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물론 대학생 중심의 학술행사와 교수중심의 학술행사와의 학력 수준의 차이때문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전공과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학술행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교수들의 권유가 있었거나 교수들의 학술강연회가 정규수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거니와

學究의 용광로 圖書館 이용실태

도서관 利用實態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대학인의 독서경향은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서 통장, 그밖에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심의 중대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항상 읽혀지는 전체적인 순위에는 변함이 없어, 근래 3·4년간 계속하여 대학원 문학원을 포함하여 문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역사, 철학, 종교의 순으로 일정한 貸出도서 패턴이 나오고 있다. 문학분야의 책이 늘 많이 읽혀지는 이유는 일반 교양적적으로서, 부담감없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학생이 읽을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단과대학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78년도의 경우 경상대(5,606권) 문리대(4,903권) 법정대(4,856권) 사범대(4,123권) 농림대(3,424권) 농림대(2,763권) 불교대(2,044권) 이부대(468권)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정확한 신뢰할만한 척도가 될수 없다. 각대학별 1인당 평균대출책수를 살펴보면 법정대가 1인당 10.6권으로 가장많은 책을 대출했으며 그다음이 경상대로서 8.1권, 농림대 6.3권, 문리대 5.6권, 사범대 4.8권, 불교대 4.6권, 공과대 3.6권, 이부대 2.6권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법정대와 경상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은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는 사실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전공과 관련 그분야의 관련된 책을 쉽게 접할수 있어서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과대의경우 의외로 책을 적게 읽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이 가능하나 우선 理·工系統 분야의 경우에는 2, 3년만지나도 자료나 책이 그 정보 자료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있는데다 본교 도서관에서는 최신 자료나 책을 쉽게 접할수 없는 까닭을 지적할수가 있다.

또한 대출서적을 종류별로보면 동양서가 28,986권으로 96.2%를 차지하고 서양서는 1,067권으로 3.5%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교 도서관에 동양서의 장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그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한편 참고실 자료이용 통계를 보면 75년 12,741권, 76년 16,314권, 77년 33,707권, 78년 37,875권으로 최근 참고실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77년부터 실시된 졸업논문제도와 관학열 고조등을 들수 있겠다.

또한 78년도 참고열람실 이용율을 과대별로 살펴보면 경상대가 17.7%로 제일 높고, 법정대가 17.5%, 사범대 17.2%, 문리대 17.0%, 불교대와 공과대가 각각 8.0%, 농림대 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열람실 이용율도 경상대의 법정대가 단연 높음을 보아서 본교의 경우 경상, 법정대 학생들의 높은 연구열을 알 수 있다. 79학년도 1학기의 참고열람실의 참고도서 이용현황을 보면 參考圖書 10,127권, 學位論文 4,369권, 定期物 (속간) 11,287권, 기타 709로 총계 26,492권에 이르고있다.

특히 학위논문 이용자는 주로 졸업을 앞두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4년생이며, 참고열람실에 구비되어 있는 학위논문은 총 7천여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할 추세에 있다. 79학년도 1학기의 도서대출상황을 알아보면 총 1만 8천2백2권으로서 이용자별로 살펴보면 경상대가 78년과 같이 가장 많은 3천6백25권, 문리대 3천2백9권, 법정대 3천1백26권, 사범대 2천6백98권 문과대 2천2백83권, 농림대 1천8백23권, 불교대 2천2백88권, 이부대 1천1백88권 공과대 7백50권으로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

78년의 경우에 월별 대출상황을 보면 3월 4.8%, 4월 10.8%, 5월 11.0%, 6월 18.9%, 7월 5.8%, 8월 3.7%, 9월 10.5%, 10월 11.9%, 11월 13.6%, 12월 4.1%로 나타나 있는데 월별로는 6월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책을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9년도 1학기의 월별 대출상황을 보면 2월 2천1백91권, 3월 3천9백52권, 4월 4천1백30권, 5월 3천2백52권, 6월 5천2백87권, 8월 1천6백31권 총 1만8천2백2권의 책이 대출되었다. 역시 금년의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6월에 가장 많은 책을 읽는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상은 학기말고사 준비및 학기초의 슬럼이던 분위기가 이때쯤이면 평정을 찾아 책읽기에 흥을 시기임을 알수 있으며 5월에 많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축제로 인한 분위기와의 어울림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교직원의 경우는 학생들과는 반대현상으로 7월과 11월에 높은 도서대출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방학이후로 인한 시간의 여유를 찾게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78년도의 경우, 3월 2,088권, 4월 1,945권, 5월 1,998권, 6월 1,943권, 7월 2,087권, 8월 1,938권, 11월 2,960권, 10월 1,171권, 11월 1,960권, 12월 1,938권, 1월 1,151권, 2월 1,919권으로 교직원도 학생과 같서로 다른 관계로 한마디의 특정한 부분을 다룬 나눈의 그것과 비교하기 힘들어 여러가지 무리를 범하게 됨다. 그러나 다른 나눈와 비교함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삼을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외국(미국, 일본, 대만등) 대학도서관의 운영체제를 보면 대개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및 일반교육과정 도서관, 인문사회과학분야 도서관, 자연과학분야 도서관, 의학분야 중앙도서관이 있고 각 단과대학별로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이 전문분야별로 학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줌 뿐만이니라 분야별 체계적으로 해줌 뿐만이니라 전공자들의 참고자료를 보충해서 이용하게 됨다.

한편 북미나 서구와는 경제력, 건축, 풍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비교할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나 이것은 학생수가 많고 대학이 많은 나라의 경우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증가되는 것과 대학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대학도서관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떠올릴 수 없다고 하겠다. 여기에 결국 대학교육이 많이 변하여 들리는 요즘 사회 각 도서관은 독서인들로 붐비고, 또한 서점가는 각종 신간과 구매인들로 한가로이 얼씬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서 통장, 그밖에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심의 중대를 가져왔기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항상 읽혀지는 전체적인 순위에는 변함이 없어, 근래 3·4년간 계속하여 대학원 문학원을 포함하여 문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역사, 철학, 종교의 순으로 일정한 貸出도서 패턴이 나오고 있다. 문학분야의 책이 늘 많이 읽혀지는 이유는 일반 교양적적으로서, 부담감없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학생이 읽을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단과대학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78년도의 경우 경상대(5,606권) 문리대(4,903권) 법정대(4,856권) 사범대(4,123권) 농림대(2,763권) 불교대(2,044권) 이부대(468권)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정확한 신뢰할만한 척도가 될수 없다. 각대학별 1인당 평균대출책수를 살펴보면 법정대가 1인당 10.6권으로 가장많은 책을 대출했으며 그다음이 경상대로서 8.1권, 농림대 6.3권, 문리대 5.6권, 사범대 4.8권, 불교대 4.6권, 공과대 3.6권, 이부대 2.6권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법정대와 경상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은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는 사실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전공과 관련 그분야의 관련된 책을 쉽게 접할수 있어서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과대의경우 의외로 책을 적게 읽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이 가능하나 우선 理·工系統 분야의 경우에는 2, 3년만지나도 자료나 책이 그 정보 자료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있는데다 본교 도서관에서는 최신 자료나 책을 쉽게 접할수 없는 까닭을 지적할수가 있다.

또한 대출서적을 종류별로보면 동양서가 28,986권으로 96.2%를 차지하고 서양서는 1,067권으로 3.5%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교 도서관에 동양서의 장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그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한편 참고실 자료이용 통계를 보면 75년 12,741권, 76년 16,314권, 77년 33,707권, 78년 37,875권으로 최근 참고실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77년부터 실시된 졸업논문제도와 관학열 고조등을 들수 있겠다.

또한 78년도 참고열람실 이용율을 과대별로 살펴보면 경상대가 17.7%로 제일 높고, 법정대가 17.5%, 사범대 17.2%, 문리대 17.0%, 농림대 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열람실 이용율도 경상대의 법정대가 단연 높음을 보아서 본교의 경우 경상, 법정대 학생들의 높은 연구열을 알 수 있다. 79학년도 1학기의 참고열람실의 참고도서 이용현황을 보면 參考圖書 10,127권, 學位論文 4,369권, 定期物 (속간) 11,287권, 기타 709로 총계 26,492권에 이르고있다.

특히 학위논문 이용자는 주로 졸업을 앞두고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4년생이며, 참고열람실에 구비되어 있는 학위논문은 총 7천여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할 추세에 있다. 79학년도 1학기의 도서대출상황을 알아보면 총 1만 8천2백2권으로서 이용자별로 살펴보면 경상대가 78년과 같이 가장 많은 3천6백25권, 문리대 3천2백9권, 법정대 3천1백26권, 사범대 2천6백98권 문과대 2천2백83권, 농림대 1천8백23권, 불교대 2천2백88권, 이부대 1천1백88권 공과대 7백50권으로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

78년의 경우에 월별 대출상황을 보면 3월 4.8%, 4월 10.8%, 5월 11.0%, 6월 18.9%, 7월 5.8%, 8월 3.7%, 9월 10.5%, 10월 11.9%, 11월 13.6%, 12월 4.1%로 나타나 있는데 월별로는 6월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책을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9년도 1학기의 월별 대출상황을 보면 2월 2천1백91권, 3월 3천9백52권, 4월 4천1백30권, 5월 3천2백52권, 6월 5천2백87권, 8월 1천6백31권 총 1만8천2백2권의 책이 대출되었다. 역시 금년의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6월에 가장 많은 책을 읽는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상은 학기말고사 준비및 학기초의 슬럼이던 분위기가 이때쯤이면 평정을 찾아 책읽기에 흥을 시기임을 알수 있으며 5월에 많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축제로 인한 분위기와의 어울림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교직원의 경우는 학생들과는 반대현상으로 7월과 11월에 높은 도서대출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방학이후로 인한 시간의 여유를 찾게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78년도의 경우, 3월 2,088권, 4월 1,945권, 5월 1,998권, 6월 1,943권, 7월 2,087권, 8월 1,938권, 11월 2,960권, 10월 1,171권, 11월 1,960권, 12월 1,938권, 1월 1,151권, 2월 1,919권으로 교직원도 학생과 같서로 다른 관계로 한마디의 특정한 부분을 다룬 나눈의 그것과 비교하기 힘들어 여러가지 무리를 범하게 됨다. 그러나 다른 나눈와 비교함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삼을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외국(미국, 일본, 대만등) 대학도서관의 운영체제를 보면 대개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및 일반교육과정 도서관, 인문사회과학분야 도서관, 자연과학분야 도서관, 의학분야 중앙도서관이 있고 각 단과대학별로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이 전문분야별로 학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줌 뿐만이니라 분야별 체계적으로 해줌 뿐만이니라 전공자들의 참고자료를 보충해서 이용하게 됨다.

한편 북미나 서구와는 경제력, 건축, 풍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비교할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나 이것은 학생수가 많고 대학이 많은 나라의 경우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증가되는 것과 대학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대학도서관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떠올릴 수 없다고 하겠다. 여기에 결국 대학교육이 많이 변하여 들리는 요즘 사회 각 도서관은 독서인들로 붐비고, 또한 서점가는 각종 신간과 구매인들로 한가로이 얼씬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서 통장, 그밖에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심의 중대를 가져왔기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항상 읽혀지는 전체적인 순위에는 변함이 없어, 근래 3·4년간 계속하여 대학원 문학원을 포함하여 문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역사, 철학, 종교의 순으로 일정한 貸出도서 패턴이 나오고 있다. 문학분야의 책이 늘 많이 읽혀지는 이유는 일반 교양적적으로서, 부담감없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학생이 읽을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단과대학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78년도의 경우 경상대(5,606권) 문리대(4,903권) 법정대(4,856권) 사범대(4,123권) 농림대(2,763권) 불교대(2,044권) 이부대(468권)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정확한 신뢰할만한 척도가 될수 없다. 각대학별 1인당 평균대출책수를 살펴보면 법정대가 1인당 10.6권으로 가장많은 책을 대출했으며 그다음이 경상대로서 8.1권, 농림대 6.3권, 문리대 5.6권, 사범대 4.8권, 불교대 4.6권, 공과대 3.6권, 이부대 2.6권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법정대와 경상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은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는 사실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전공과 관련 그분야의 관련된 책을 쉽게 접할수 있어서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과대의경우 의외로 책을 적게 읽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이 가능하나 우선 理·工系統 분야의 경우에는 2, 3년만지나도 자료나 책이 그 정보 자료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있는데다 본교 도서관에서는 최신 자료나 책을 쉽게 접할수 없는 까닭을 지적할수가 있다.

또한 대출서적을 종류별로보면 동양서가 28,986권으로 96.2%를 차지하고 서양서는 1,067권으로 3.5%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교 도서관에 동양서의 장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그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한편 참고실 자료이용 통계를 보면 75년 12,741권, 76년 16,314권, 77년 33,707권, 78년 37,875권으로 최근 참고실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77년부터 실시된 졸업논문제도와 관학열 고조등을 들수 있겠다.

또한 78년도 참고열람실 이용율을 과대별로 살펴보면 경상대가 17.7%로 제일 높고, 법정대가 17.5%, 사범대 17.2%, 문리대 17.0%, 농림대 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열람실 이용율도 경상대의 법정대가 단연 높음을 보아서 본교의 경우 경상, 법정대 학생들의 높은 연구열을 알 수 있다. 79학년도 1학기의 참고열람실의 참고도서 이용현황을 보면 參考圖書 10,127권, 學位論文 4,369권, 定期物 (속간) 11,287권, 기타

졸업논문제 이후 貸出 크게 늘어

전문司書制·참고 정간실 병난방등 시급

法政·經商大 이용많아……工大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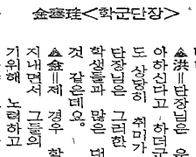
과도한 規律… 때로 異質感도

"군사교육 외에 대화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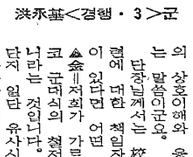
"학생증좀 봅시다"…열람실도, 교문도, 좁은문.!

학군단장과 법정계 학생

▲일시=9월17일12시
▲장소=학군단장실
▲정리=김선주 기자



金泰珪<학군단장>



洪承基<경행·3>군

▲洪=안녕하신가? 월계폐서 반갑습니다. 학군단 단장님하면 엄하고 어려울 것이란 생각뿐이었는데 직접 뵙고보니 자상하신 아버님 처럼생각됩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관 혹은 국민관이라면요?

▲金=軍人은 살육자 지시에 따르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나의 국가관이라 하겠읍니다.

▲洪=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대학이라는 일종의 특수사회의 교육을 맡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우리나라를 짊어질 사람들은 역시 젊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세대가 생각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각기 그때의 상황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자의 상호 절충점을 찾아서 평양수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세대는 신세대의 의견을 잘 들어야하겠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신·구·

河瑾燦

해학과 恨이 얼룩진 전통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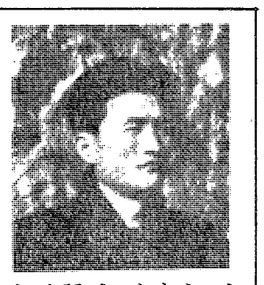
작가 면담

◇면담·기록 方基弘

인민군에 희생된 父親… 작품구상중

민요, 진한방언의 팽팽한 구성력

植民地, 전쟁의 상흔이 주된 소재



내 小說이 꽉짜여 있다는 건 내가 십구세 기식 창작 공부를 했기 때문일 게야. 무엇이 옳은가는 자네가 판단하게.

河 瑾 燦

<小說家>

작가연구 자료 수집차 이책 저책 뒤져보다가 「엇따, 이사람 잘생기고 말씨도 무척 좋잰는데…」 하고 그의 사진 박은 백과사전을 매만지며 속으로 히히거렸다. 막상 그를 光化門동의 노인네들만 우글거리는 세진茶房에서 보았을 때 생각보다 큰 키와 주름도 많이 간 얼굴에 내심 놀랐었다. 약속시간보다 20여분 미리 더기하고 있던 나보다 삼분 차이로 그가 왔다. 가벼운 인사 그리고 소개를 한 후, 『우선, 몇개의 사무적인질어. 그럼그럼지 몰라도 그분에서 數艱을 잡고 있다가 그의 婦人이된 여선생李鍾順여사도 文人에대한 동경을 가졌단고하니 말이다.

『선생님의 소설이 갖는 최대의 장점과 그독질을 간추다면…』

사실 이럼 질문은 간지런운 것이었지만…

『그런 것을 대고 말하자니 쑥스럽구만. 어태껏 내 소설에 가장 주목해준 이 몰라보고 비판문학과 소기의 접촉을 시도한 작가는 나 밖에 없었을게야.(필자註—20년대 미관문학과 소기의 접촉을 시도한 작가는 나 밖에 없었을게야.(필자註—金州師範學校時節)에는 시어주고 독려해준 편이지. 낯시의 어지럼운 문단에서 나와같이 흑려간(恨)、그 전통정서에 골몰하고 비판